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투쟁

리 성 남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것은 국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며 천만군민이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에 넘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체육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워야 할 현실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킬데 대한 방침은 나라의 체육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며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체육에 대한 사회적분위기를 세우고 일군들의 관심을 높이도록 하시였다.

체육에 대한 사회적분위기를 세우고 일군들의 관심을 높이는것은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체육은 조국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며 인민들의 건강과 민족의 통성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런 의미에서 체육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체육에 대한 사회적분위기를 세우고 일군들의 관심을 높여야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수 있고 온 사회가 락천적이며 혁명적인 기백으로 들끓을수 있게 할뿐아니라 체육선수들의 공지와 영예감을 높일수 있고 체육기술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우리 당은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을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웠으며 체육의 대중화를 체육발전의 기본방향으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누구나 다 체육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고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세우며 일군들속에서 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몸소 체육경기까지 보아주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주체100(2011)년 12월초 빙상회거모범출연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체육을 대중화하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켜야 한다고,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이 고상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게 하며 온 사회에 희열과 랑만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10월 29일에 진행된 제12차 인민체육대회 체육단부문 4.25팀과 선봉팀사이의 남자축구 결승경기가 체육에 대한 사회적분위기를 세우고 일군들의 관심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이 자랑스런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뜻깊은 첫해에 제12차 인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기가 끝난 다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는 체육사업에 큰 힘을 넣어 하루빨리 나라의 체육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고, 체육은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세계만방에 떨치고 인민들에게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데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서 체육선수후비들을 찾아내어 전망성있게 키울데 대하여서와 체육을 대중화하고 군중체육을 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전문체육단들의 경기는 물론 대중체육부문의 축구, 배구, 룡구, 사격, 활쏘기 등 여러 종목의 체육경기들을 보아주시면서 체육에 대한 사회적분위기를 세우고 국가적인 방조를 강화하며 특히 일군들이 체육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이 부문 사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체육부문에서는 체육단부문 종목별련맹전들이 계속 진행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각 도들과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별대학경기들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열렬한 응원속에 널리 진행되게 되었다.

일군들이 군중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선수들의 경기도 자주 보아주면서 체육부문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함으로써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투쟁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리고 기관, 기업소들에서 대중체육을 적극 장려하고 명절날이나 일요일 같은 때 체육경기를 자주 조직하여 어디가나 체육으로 흥성거리게 되었다.

더우기 최단기간안에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으로 일떠세우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에 따라 나라의 전반적인 체육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조직되었다는 소식은 온 나라를 높아가는 체육열기로 끓게 하였다.

한편 TV와 방송, 신문과 잡지, 체육소개판에 세계 각지와 국내에서 진행되는 체육경기소식들과 국제, 국내경기들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소개선전하는 사업과 근로자들속에서 체육상식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이 널리 진행됨에 따라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체육선수들과 감독들을 높이 평가하고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워주도록 하시였다.

체육은 나라의 위력을 시위하고 대외적권위를 높이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육경기는 나라들사이의 대결이라고 말할수 있다. 특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사이의 경기는 총포성이 없는 전쟁이나 같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의 직접적담당자, 집행자는 바로 우리 체육인들이다.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 공화국의 지위를 세계만방에 떨쳐야 할 임무가 우리 체육인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 그러므로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들끓게 하기 위해서는 체육인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우대하여주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제경기들에 나가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체육선수들과 감독들에게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고 인생의 최고절정에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요국제경기대회들에 참가하여 우리 식의 전법으로 굴함없이 싸워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선수들과 감독들이 조국으로 돌아올 때마다 수도시민들의 열광적인 연도환영을 받도록 해주시였고 국가연회와 금강산휴양을 비롯하여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도록 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국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대를 두고 전해갈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었다.

주체101(2012)년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영국의 런던에서는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200여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온 1만5 000여명의 선수들의 치열한 대결전이 벌어진 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세계언론들의 예상과 억측을 뒤집어엎고 4개의 금메달을 쟁취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0월 29일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우승한 선수들과 감독들을 만나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들과 감독들을 축하해주시고 그들의 경기소식을 다시금 들어주신 다음 국제경기들에 나가 우승을 하여 공화국기를 날리는 체육인들이야말로 참다운 애국자들이고 영웅들이며 멋쟁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1등을 한 선수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국제경기들에서 계속 우승하여야 한다고,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또다시 우승하기 위하여 목표를 높이 세우고 훈련을 정력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선수들과 감독들이 더욱 분발하여 국제경기들에서 계속 높은 성과를 거두며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도 금메달로 선군조선의 영예를 떨치리라고 믿는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선수들과 감독들은 다음번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더 많은 금메달을 쟁취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하겠다는 자기들의 불타는 의지를 원수님께 말씀드렸다.

체육선수들과 감독들은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들이 지닌 책임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리며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훈련방법을 완성하여 체육의 과학화수준을 더 높은 단계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미더운 체육인들은 제52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혼성복식경기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닌것을 비롯하여 력기와 레슬링, 권투와 유술, 축구와 마라손 등 여러 종목들에서 세계 및 아시아선수권을 쟁취함으로써 조국의 영예를 빛내였으며 사회주의수호전에 떨쳐나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림픽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승하고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우리 선수들과 감독들을 몸가짜이 부르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들의 소망대로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체육관과 경기장들을 새로 개건보수하고 체육시설들을 더 많이 건설하도록 하시었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잘 갖추어야 한다. 체육시설들을 잘 꾸려놓아야 누구나 일상적으로 체육을 할수 있으며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체육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나라의 곳곳에 체육시설들을 더 잘 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널리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체육관과 경기장들을 개건보수하고 체육시설들을 새로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을뿐만아니라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리어있고 나라의 체육발전뿐아니라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체육관과 경기장들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평양체육관과 양각도축구경기장, 5월1일경기장, 청춘거리 체육촌의 체육시설들이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이 훌륭히 개건보수됨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체육열기를 북돋아주는데 더욱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곳곳에 체육공원과 체육시설들을 새로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방대한 부지면적에 룡구장, 배구장, 지상호케이장, 로라스케트장을 비롯하여 각종 대중체육시설들을 갖춘 현대적인 룡라인민체육공원을 훌륭히 일떠세웠으며 각 도소재지들에서도 체육공원을 꾸리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평양시에서는 주체101(2012)년 한해동안에만도 공원들에 15개의 룡구장과 20개의 배구장, 5개의 정구장과 21개의 바드민턴장, 2개의 미니골프장, 23개의 로라스케트장을 비롯한 종목별체육시설들이 새로 꾸려지게 되였으며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마다에 수영관들이 건설되어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기풍을 확립할수 있게 하였다.

전체 인민이 건장한 체력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가 희열과 랑만으로 차넘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펼쳐나선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미림승마구락부와 마식령스키장을 짧은 기간에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웠다.

그리하여 날을 따라 새롭게 변모되는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을뿐 아니라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였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기와 권투, 레스링, 유술, 체조, 정구, 예술체조발전에 필요한 최상급의 수많은 체육기자재들을 보내주시였다는 소식과 평양국제축구학교가 세워지고 체육후비들을 키우는 정연한 교육체계가 완비되어 여기저기에서 체육신동들이 혜성처럼 나타났다는 소식은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체육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그들의 열의를 더욱 높여주었다.

이처럼 체육관과 체육시설들이 새롭게 개건보수되고 나라의 곳곳에 현대적인 체육시설들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누구나 자기의 소질과 취미에 따라 체육활동을 마음껏 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